

현상학적 공간구성에서 '깊이' 지각

- 후설의 '촉발적 부조'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여로' -

신 호 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1. 서언(序言)

우리는 공간에 있는 이런저런 사물을 지각한다. 공간은 위-아래, 왼쪽-오른쪽, 앞-뒤의 3차원을 가진 위치체계다. 과학은 공간을 X, Y, Z의 객관적인 좌표로 설명하지만, 현상학의 과제는 사물을 지각할 때 '체험하는 공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물은 지각에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차원인 감각의 체험으로부터 구성된다. 따라서 현상학적 분석은 궁극적으로, 사물지각의 공간성이 발생하는 감각의 장(場)으로까지 천착해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점에서 후설(E.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은 맥을 같이 한다.¹⁾

주 제 어: 후설, 메를로-퐁티, 지각, 감각, 공간, 깊이, 지향성, 촉발, 수동적 종합
Husserl, Merleau-Ponty, perception, sensation, space, depth, intentionality, affection, passive synthesis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의 <공간>에서 ‘깊이(profondeur)’라는 표제 하에, 세계가 ‘원근(遠近)’을 지닌 3차원으로 지각되는 사태를 분석한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것을 멀리 있는 ‘배경’으로 또는 가까이 있는 ‘전경’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물에서도 ‘전면’은 눈과 가까이 있고 ‘측면’을 따라 뒤로 가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안다. 이때 ‘더 가까이’와 ‘더 멀리’는 어떤 의미이며, 그 의미를 성립시키는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현상학이 해명하려는 사물지각에서의 공간적 깊이다.

일상적으로는 ‘원근’이 더 쉽게 이해됨에도 메를로-퐁티가 굳이 ‘깊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마치 스크린과 같은 수직의 균질한 평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전면을 볼 때 오목한 홈과 볼록한 돌기로 이루어진 깊이는, 측면에서 볼 때 시선에서 멀고 가까운 ‘거리’가 된다. 게다가 같은 사태라도 ‘거리’라는 표현은 세계를 평면으로 간주하는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깊이’는 3차원의 공간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용어다.²⁾ 그런데 본고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깊이의 차원(Tiefendimension)”이라는 용어를 이미 후설의 『이념들Ⅱ』에서 발견할 수 있다(Hua IV, 127-128). 후설은 공간이 갖는 3차원을 위-아래의 ‘높이’, 왼쪽-오른쪽의 ‘너비’, 앞-뒤의 ‘깊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제시하는 체험된 공간의 세 차원에 정확히 대응한다. 이것은 공간구성이라는 문제에서 두 철학에 대한 비교연구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1) 두 철학의 일반적 관계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는, 이남인,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철학연구』 제83집, 철학연구회, 2008. 특히, 감각과 지각이라는 주제에 천착하여 양자를 계승 및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연구는 줄고(拙稿),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감각의 지향성 문제」, 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9.

2) 이러한 맥락에서 메를로-퐁티가 ‘거리’를 ‘깊이’로 표현하는 것은 초기저술인 『행동의 구조』에서부터 발견된다(SC, 201).

현상학적 공간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후설보다는 주로 메를로-퐁티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깊이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의 생각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의 현상학』에서 체험된 공간이 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공간> 분석의 초반부인 ‘높이’에서 등장한다. 게다가 이것은 『이념들 II』에서 몸을 방위설정의 영점(零點)으로 규정한 후설의 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철학에 대한 비교 역시 주로 ‘몸’이라는 주제에 착안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것이다.³⁾ 하지만 메를로-퐁티가 강조하고 있듯이 공간이 개시(開示)되고 사물이 지각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이 깊이라고

3) Claesges, U., *Edmund Husserls Theorie der Raumkonstitution*,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4. 이 연구에서 우리는 후설의 공간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운동감각적 체계’에서 ‘멀고-가까움(Nah-Fern)’이 다루어지고 (§17; 79-84) 이어서 ‘공간의 3차원성(Dreidimensionalität)’에 대해 논하고 있는 부분이 (§18; 84-89), 본고를 주도하는 관심의 범위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고가 위 연구로부터 차별화된 의의를 갖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 연구는 원근을 단지 운동감각적 체계에 속한 세 차원 중의 하나로 간주하지만, 본고는 메를로-퐁티의 ‘깊이’ 분석에 의지하여 원근을 3차원의 공간성 즉 지각된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차원으로 간주한다. 또 위 연구는, ‘2차원의 장(場)’이 하나의 차원을 더 획득함으로써 ‘3차원의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추상적인 논의를 비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각의 장으로부터 지각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그다지 큰 역점을 두지 않는다. 반면 본고는 위 연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바로 이 문제를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학사, 2004, pp. 322-363.; 류의근, 「메를로-퐁티의 공간 분석과 그 의의」,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0집, 한국현상학회, 1998, pp. 182-202. 이 두 저술은 메를로-퐁티의 공간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얻기 위해 유용하다. 하지만 공간적 수준의 성립을 논하는 항목인 ‘높이’에 비해 ‘깊이’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략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주제인 감각으로부터 지각이 구성되는 발생과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최재식, 「신체개념을 통한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후설 현상학 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0집, 한국현상학회, 2009, pp. 1-33. 이 논문은 두 현상학에서 ‘몸’이 갖는 지위와 의미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자의 관계를 차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여러 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고의 관심인 공간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주제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다.

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토대로, 사물지각에서 공간적 깊이가 감각체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성되는지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본고는 먼저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따라가면서 경험주의(2.1)와 지성주의(2.2)의 지각이론을 비판한다. 두 이론은 시각에 주어지는 감각을 평면적 인상 내지는 의미를 결여한 질료로 간주했기 때문에 지각에서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객관주의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생생한 깊이 체험을 드러내려는 현상학적 분석은, 지각의 발생과정을 거슬러 추적하는 ‘현상학적 환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깊이’와 ‘지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물에 대한 전체지향과 그것을 이루는 계기에 대한 부분지향을 구분하는 논의는, 깊이가 지각에 불가결한 계기라는 점을 드러낸다(3.1). 둘째, 깊이가 지각의 본질적 계기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물의 깊이를 파악하는 가능성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행동의 장(場)을 향한 몸의 운동에서, ‘운동감각’의 전개에 상응하여 사물의 측면이 이행(移行)하며 나타난다는 분석이 해명의 단서가 된다(3.2). 하지만 이 두 단계의 분석만으로는 지각의 하부토대로서 지속적으로 구성기능을 수행하는 ‘수동성(受動性)’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셋째,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지각의 근저(根底)에서 감각이 끊임 없이 재조직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감각체험은, 운동감각의 전개에 의해 매 순간 위상이 동요되면서도 곧바로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부단히 재편되는, 유동하는 구조의 ‘장(場)’이다. 사물은 바로 이러한 장으로부터 깊이와 더불어 부각(浮刻)된다(4.1). 넷째, 이렇게 감각적 장이 조직화되는 심층적 원리를 ‘촉발(觸發)’에 대한 후설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후설은 ‘촉발적 부조(浮彫)’라는 표제 하에, 대상세계의 질적인 정도의 차이가 의식을 부추기고, 이렇게 유도된 지향적 시선이 이행함으로써 형성되는 감각의 구성을 분석한다. 이것은 ‘동기화하는 것’과 ‘동기화되는 것’의 교차적 ‘순환’에 의해 사물이 지각된다는 메를로-퐁티의 분석과 일치한다(4.2). 하지만 후설의

분석은, 질적인 정도의 높낮이(高低)를 공간적인 요철(凹凸)의 형태라는 계기로 보완할 때에만, 진정한 지각의 ‘깊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4.3).

이로써 본고는 결론적으로,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깊이 및 공간적 세계의 구성은, 지향적 시선이 사물의 형태에 의한 동기화에 감응(感應)하여 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정한 길, 즉 ‘지각의 여로(旅路)’를 전제하는 ‘수동적 종합’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2. 깊이에 대한 객관주의적 분석과 그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비판

2.1. 경험주의에 대한 비판: 너비로 압축된 깊이

메를로-퐁티는 먼저 경험주의의 지각이론을 비판하면서, 버클리(G. Berkeley)의 『신(新)시각론』을 검토한다(PP, 303). 버클리에 따르면 ‘거리(distance)’는 직접 지각되지 않는다(NTV, §2). 지성주의는 이 거리를 “시각 축선의 각”에 의해서, 즉 기하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지각한다고 설명한다(NTV, §4). 즉 “맹인이 [양손에 든] 두 지팡이”를 교차시켜 거리를 가늠하는 것처럼, 먼 사물을 볼 때에는 두 눈에서 발산하는 빛이 그 사물과 이루는 각이 작기 때문에 멀리 있다는 것을 알며, 가까운 사물을 볼 때에는 그 각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PP, 305-306).⁴⁾ 경험주의자인 버클리는, 거리를 지각하는 ‘경험’에 비추어보면, 어떤 사물이 가까이 또는 멀리 있다는 것을 지각할 때 광학이 의지하는 “기하학적인 선이나 각”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고 비판한다(NTV, §12-§15). 거리는 수학처럼 이성적 추론에 의해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시각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데카르트의 『굴절광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맹인과 두 지팡이가 제시되는 곳은 Descartes, R., *Oeuvres philosophiques, Tome I (1618-1637)*, Paris: Bordas, 1988. p. 704.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적 추론에 의해 지각되지 않는 거리가 ‘경험’에 의해서도 ‘직접’ 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버클리는 거리가, 직접 지각되는 다른 관념의 매개에 의해 “시사(suggest)”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NTV*, §9-§11). 직접 지각되는 관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눈의 눈동자를 움직일 때 느껴지는 변화의 감각이고(*NTV*, §16), 둘째는 멀리 있는 물체에 다가갈 때 느껴지는 상(像)의 어른거림이며(*NTV*, §21), 셋째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마음이 주의의 노력을 기울일 때 느끼는 눈의 긴장감이다(*NTV*, §27). 이러한 감각이야말로 직접 경험되는 감각이며, 거리는 본성상 이러한 감각과 “아무런 [필연적] 관계도 없이” “습관적으로 연합”되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NTV*, §28; §45). 버클리는 이 연합이 너무나 견고해서 거리가 직접 파악되는 것처럼 여기는 오류에 빠지기 쉽지만, 실제로 거리는 매개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NTV*, §51).

메를로-퐁티는 버클리가 위와 같이 주장할 수 있었던 전제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버클리는 망막에 맺히는 감각인상이 “평면적”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거리감인 “깊이가 시각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PP*, 303). 메를로-퐁티는 버클리가 그토록 의지하려는 ‘경험’이, 도대체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그러한 것인지를 되묻는다. 즉 버클리의 ‘경험’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이 아니라, 객관주의적 반성에 의해 추상된 경험은 아닌가? 직접 지각되는 일차적인 관념과 그것의 매개에 의해 시사되는 이차적인 관념을 구분하고 양자를 ‘연합’에 의해 설명하는 경험주의는, 거리에 대한 원본적인 지각체험을 객관주의적 반성에 의해 왜곡한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깊이는, 너비[인 전면]에 비견될 수 있는, 두 점의 병치(並置)”로 전락하기 때문이다(*PP*, 303).

예컨대, 정육면체를 생각해보자. 경험주의는 이것을 전면과 측면 및 후면을 가진 입체, 즉 공간적 사물로 지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면은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사변형으로 일그러진 측면은 정사각형인 전면과 동일한 ‘평면’ 상에 있으므로, 눈과 측면의 거리는 전면과의 거리보다 ‘멀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물을 회전하며 본다고 하더라도

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전면을 볼 때 측면이었던 것을 앞에서 보는 경우, 방금 전까지 전면이었던 것은 측면이 된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측면이 된다고보다는 측면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면과 구분하여 ‘측면’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보이는 것이 모두 평면이라면 측면은 ‘전면’으로 ‘압축(壓縮)’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험주의의 지각이론에 따르면, 시각에 주어지는 것은 오직 눈과 밀착하여 수직으로 세워진 평면의 ‘너비’일 뿐, 사물의 측면은 물론 후면에 대한 거리감인 ‘깊이’는 결코 지각되지 않는다. 이점은 개별사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간체험 일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통상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지만, 거리지각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전경’보다 ‘뒤’에 있는 ‘배경’이라는 말 자체가 애당초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물론 버클리라면 배경을 볼 때에는 눈의 긴장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배경이 전경보다 더 멀리 있다는 사실이 ‘시사’된다고 설명할 지도 모른다(*NIV*, §27). 하지만 우리는 전경과 배경을 볼 때 눈이 느끼는 긴장감을 비교하여 거리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배경은 언제나 전경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파악되며, 지각에서 전경이 없이는 배경도, 마찬가지로 배경이 없이는 전경도 아무것도 아니다(*PP*, 26).

따라서 전경과 배경, 그리고 전면과 측면을 함께 파악하는 깊이에 대한 근원적 체험이 없다면, 경험주의 이론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측면을 또 다른 전면으로 설명하려 하는데, 실상 모두가 전면이라면 애당초 ‘측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험주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 깊이는 이미 너비로 확인된 깊이이고 [...] 그 주장은 외견상으로도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PP*, 304)

2.2. 지성주의에 대한 비판: 너비가 조립된 깊이

경험주의는 그것이 의지하는 ‘경험’이 실제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반면 지성주의의 “반성적 분석에서 깊이가 보이지 않는 것

은 원리적인 이유에서다. [...] 감각적 인상은 [지성에 의해] 주파되어야 하는 잡다(雜多)만을 제공할 뿐이고, 따라서 여타의 공간적 관계처럼, 거리 역시 종합을 파악하는 사유하는 주체에 대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PP, 303)⁵⁾ 경험주의는 ‘너비’만 지각한다고 전제하므로 깊이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지성주의는 ‘깊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다. 하지만 깊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종합에 의해 ‘사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면, 측면, 뒷면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 무차별적인 ‘질료’일 뿐이고, 지성적 사유는 이것들을 종합하여 기하학적인 입체를 구성한다. 심지어 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후면과 아랫면까지도 종합한다.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난점을 지닌다. 첫째, 지성주의는 감각에 주어지는 내용이 ‘너비’일 뿐이라는 경험주의의 편견을 고스란히 인수한다. 전면과 측면이 질료로서 무차별적이라는 것은, 결국 측면이 감각적으로 전면과 구분되는 아무런 의미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전면과 구분하여 ‘측면’을 이야기하는가? 애당초 전면과 구분되는 ‘측면’을 말하는 것은, 지성이 질료에 비로소 전면과 측면의 의미를 부여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상의 구조로서 전면과 측면이 이미 고유한 ‘형태적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PP, 46; 85) 그렇다면 지성주의는 의미를 띤 구조적 형태에 대한 원본적인 지각체험을 추상하여 분해한 후, 그것을 다시 객관주의적 반성으로 ‘조립(組立)’하는 것에 다를 아니다.

둘째, 만약 정육면체가 지성의 종합을 통해 사유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이 측면은 변형되고 모서리의 길이는 제각각인 입체로 ‘보이는’ 것인지 설

5) 메를로-퐁티가 비판하는 ‘지성주의’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나는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이성론적 실재론’이며, 다른 하나는 칸트의 ‘초월론적 관념론’이다. 양자의 대비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곳은 <공간>의 초반부인데, 전자는 공간을 사물의 속성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공간을 사물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힘으로 간주한다(PP, 290-291; 조광제 2004: 324-327). 본 주(註)가 문제되는 곳에서 메를로-퐁티의 비판이 겨냥하는 것은 초월론적 관념론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맹인의 두 지팡이”(PP, 306)를 언급하는 부분은 데카르트나 말브랑슈의 이성론적 실재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각의 현상학』에서 경험주의와 대비하여 서술하는 경우, 메를로-퐁티는 양자의 구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할 수 없다. 현상학은 기하학적인 정육면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정육면체가 왜 지각체험에서는 ‘왜곡된 형태로 보이는’ 것인지 묻고 있을 뿐이다. 지성주의의 주장대로 지각이 곧 사유라면, 애초부터 감각적으로 ‘본다’는 말은 전혀 무의미할 것이다(PP, 58). 그렇다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관점’에 의해 일그러져 ‘보이는’ 사물이고, 기하학적인 입체는 이렇게 지각된 사물에 “이념의 옷을 입혀”(Hua VI, 51) 지각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의식인 사유의 대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⁶⁾? 결국 지성적 종합은, 이미 지각에서 “실현된 깊이를, 나에게서 일어난 깊이가 아니라 측면에 위치한 관객에 대한 깊이, 즉 점들의 동시적 병치인 너비로 반성”하는 것일 뿐이다(PP, 304).

겉으로 경험주의와 지성주의가 “대립한다 하더라도, 양자는 은연중에 우리의 실제적 체험을 억압”하고 있다. 그 억압은 깊이를 ‘측면에서 본 너비’로 간주하는 객관주의적 편견으로, 이것이 바로 “깊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유다(PP, 303). 객관주의가 상정하는 “주체는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포기해야 하며, 자신을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편재하는 신(神)에 대해서[만] 너비와 깊이는 등가적이다. [결국] 지성주의와 경험주의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PP, 304)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과학의 객관주의가 인간의 관점을 신의 관점으로 환원하지도 기하학적 사유로 평준화하지도 않은 “현상적 장(Le champ phénoménal)”(PP, 80)에서, 깊이에 대한 지각, 즉 공간적 세계가 처음으로 열리고 사물이 비로소 태어나는 원초적인 사태를 기술하고자 한다.

6) 후설의 『위기』를 주도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이념들 I』에서부터 제시된다. “기하학적인 개념은 ‘이념적인(Ideal)’ 개념이며,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엇을 표현한다. [...] 정밀한 개념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이념’의 특성을 지닌 본질 속에 그 상관자를 갖는다. 이러한 이념 내지는 이념적 본질(Idealwesen)은 기술적 개념의 상관자인 형태적 본질(morphologisches Wesen)과 대립한다. [...] 원리상 어떠한 감성적 직관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이념적인 본질을 산출하는 이념화작용(Ideation)은 [...] 본질파악(Wesenserfassung)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이다.”(Hua III/1, 155)

이 점에서 ‘높이(hauteur)’나 ‘너비(largeur)’의 차원보다도, 깊이는 객관주의적 편견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가장 실존적인 차원이다(PP, 305). 왜냐하면 위-아래의 높이나 왼쪽-오른쪽의 너비는 세계를 평면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지만, 깊이는 나의 시선이 ‘앞’에 있는 ‘무엇’을 ‘향해 있다’는, 즉 ‘세계-에로-존재(être au monde)’에게 ‘구체적으로 현전(現前)’하는 사물의 근원적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화관 스크린 바로 앞에서는 영상이 평면으로 어른거릴 뿐 전혀 입체감을 느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사물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너비나 높이보다 먼저 ‘앞-뒤’의 깊이를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깊이’는 2차원의 평면이 아닌 3차원의 ‘공간’을 개시(開示)하는, 그래서 주체가 감각내용이 아닌 ‘사물’을 지각하게끔 하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이기 때문이다.

3. 사물의 공간성을 구성하는 깊이와 운동감각

3.1. 사물의 지향적 계기로서 직접 파악되는 깊이

객관주의는 깊이를 직접 파악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각에 대한 기호로 간주한다. ‘기호’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오직 사유에 의해 해석됨으로써만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PP, 305). 그러나 멀어지는 자동차와의 거리는, 작아지는 자동차의 크기를 보고 추론함으로써 의미를 획득하는 기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동차가 나로부터 멀어져가는 사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한다.⁷⁾ 이것은 지각이

7) 후설은 『이념들 I』에서, ‘사물 자체’가 따로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호’로서 감각 인상이나 관념만을 지각할 뿐이라는 기존의 철학적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사람들은] 사물이 그 자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체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지각이 사물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리적인 오류다. [...] 사물의 초월이 심상(心象)이거나 기호라는 생각은 오류로 판명되었다. [...]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적 사물은 그 초월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것이며,

사유나 반성에 선행하는 더 근원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호를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공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된 공간이 이미 열려있을 때에만 객관주의가 주장하는 ‘소위’ 해석해야 할 기호라는 것도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각은 세계-에로의-입문(initiation au monde)이기 [때문에] [...] 우리는 지각의 수준에서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객관적 관계를 [미리] 지각에 놓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PP, 306; 80; 436). 결국 객관주의에 사로잡힌 과학적 설명은 “우리가 거슬러 추적해야 하는 구성작업의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PP, 304)하는 일종의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⁸⁾

깊이가 직접 파악된다면, 깊이와 지각의 관계는 무엇인가?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초로서, 우리는 『논리연구』에서 지각작용의 ‘전체’와 ‘계기’에 대한 후설의 분석을 참조한다. 후설은 이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대상은 상이한 측면에서 보인다. 어느 한 측면에서 볼 때 단지 상(像)의 형태로만 시사되던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충분히 입증하는 지각이 된다. 저 측면에서 경계에 의해 다만 간접적으로 더붙어-사념되고 앞서-해석되기만 하던 것이, 이 측면에서는 적어도 상(像)의 형태로 암시되

그 생생한 구체성에서 의식 양상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 지각을 기호나 심상에 대한 의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Hua III/1, 89-90) “사물은 다른 어떤 무엇에 대한 기호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호다.”(Hua III/1, 113)

- 8)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방식의 논변으로 객관주의의 편견을 비판한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지각의 원본성’이다. 기억의 재생산이니 감각적 기호의 해독이니 하는 것으로 지각을 설명하려는 객관주의는, 자신이 해명해야 하는 것을 전제할 채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객관주의가 제기하는 문제나 그것이 제공하는 설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상학이 다루는 ‘근원적인 지각체험’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것은 초기 저술인 『행동의 구조』에서부터 후기 저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조다. “이 모든 짜맞춰진 가설(hypothèses constructives)은, 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한다.”(SC, 189) “과학은 지각적 신념을 전제할 뿐 설명하지 않는다.”(VI, 30) 이것은 『위기』에서 후설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

고, 그것은 [관점적 시각의] 원근법에 의해 단축되고 음영으로 현출하다가, 새로운 측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이 그러한 바대로’ 현출하게 된다. [...] 모든 지각과 상(像)의식은, 전체지향의 통일로 융합된 부분적 지향들의 직물이다. 전체지향의 상관자는 사물이고, 부분적 지향의 상관자는 사물의 부분들과 계기들이다. 오직 이렇게 해서만, 어떻게 의식이 ‘참으로 체험된 것’을 넘어서-도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의식은 이른바 [주어진 것 을] 넘어서-사념할 수 있으며, 이 사념은 충족될 수 있다.”(Hua XIX/2, 574)

정육면체에서 전면은 완전하게 주어지므로 ‘참으로 체험된’ ‘좁은 의미의 지각’이다. 한편 모서리를 ‘경계’로 측면은 ‘원근법적으로 축약되는(perspektivisch verkürzt)’ 일그러진 ‘상(像)의 형태로 시사(bildliche Andeutung)’ 되는 것이 고⁹⁾, 보이지 않는 후면은 전면 및 측면과 더불어 거기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미리-해석’된다. 의식은 자신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über)’ 이 세 부분지향이 통일된 전체, 즉 ‘대상에 대한 ‘전체지향’으로서의 ‘지각’을 구성한다. 후설은 사물의 측면이나 후면에 대한 지향을 ‘기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Hua XIX/2, 573). 측면과 후면은 직접 파악되는 지각작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계기(moment)’다. 그런 의미에서 ‘깊이’는, 전체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요소(element)’와는 다르다.

메를로-퐁티는 게슈탈트 심리학을 원용하여, 깊이가 지각에서 분리될 수

9) 독일어 ‘andeuten’은 옮기면 ‘시사(示唆, suggest)’가 된다(Husserl, E., *Logical Investigations*, trans. by J. N. Findlay. London: Routledge and K. Paul, Humanities Press, 1970, p. 701.). ‘시사’란 무엇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전에 다소나마 막연한 상태로 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경험주의자인 버클리가 깊이는 지각되지 않으며 다만 ‘시사’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후설이 사용하는 ‘시사’의 의미가 버클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해야만 한다. “원근법적으로 축약된다”는 후설의 분석은 축약되는 측면 역시 직접 파악되는 지각의 계기라는 점에서, 측면이 전면으로 ‘압축’되어 거리가 직접 파악되지 않는다는 버클리의 견해와 다르다. 덧붙여 위의 인용에서는 “perspektivisch”라는 단어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원근법’뿐만 아니라 ‘관점적 시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곧 이어지는 논의에서 ‘관점을 가진 시각’이 어떤 의미에서 ‘원근적 깊이’에 따른 왜곡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없음을 강조한다. “떨어져 있는 대상으로 향해있는”(PP, 308) 상황에서 우리는 거리를 직접 지각한다. 재떨이를 보는 경우, “나의 지각은 [감각인상이나 질료와 같은] 의식의 내용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떨이 그 자체를 [지]향한다.”(PP, 309) 그리고 재떨이에 대한 지각에는 이미, ‘세계-에로-향해-있는’ 지각의 본질적 계기로서 원근이 속한다. 즉, 재떨이는 단적으로 ‘거기’, 내 ‘앞에 있는’ 사물로 파악된다. 여기서 파악되는 원근의 의미는, 객관적인 수준에서 반성적인 사유에 의해 획득되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암묵적으로 떠맡는 체험된 의미다. 즉 몸은 ‘깊이’의 계기와 불가분하게 결부된 ‘전체로서의 상황’을 지각한다. 지평선을 향해 뻗은 도로 좌우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경험주의는 감각인상에 의지하여 두 번이 언젠가는 수렴한다고 설명할 것이고, 지성주의는 기하학적 사유에 의해 두 번이 절대적으로 평행하다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현상학의 “체험된 원근법(perspective vécue)”에 의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만 “깊이로(en profondeur) 평행하다”고 말해야만 한다. ‘관점’을 가진 시각의 ‘원근법’에 의해 도로의 형태가 왜곡(déformation)되어 있지만, 그 왜곡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한 왜곡을 통해서만, “나는 길 자체로 향해 있는(Je suis à la route elle-même) 것이다. 결국 깊이는 도로에 대한 지향(intention) 자체다.”(PP, 310; VI, 39)

그럼에도 위의 분석은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후설은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계기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대상의 ‘동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계기의 ‘넘어섬’ 자체가 무엇인지는 더 규명하지 않는다. 메를로-퐁티도 깊이가 직접 파악된다고 강조할 뿐, 전체로서의 지각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해명이 필요한 문제는 지각에서의 ‘이행’과 ‘상황’이다. ‘운동감각(Kinästhesie)’에 대한 분석이 단서를 제공한다.

3.2. 사물지각을 위한 운동감각의 기능

후설에 따르면 공간적 사물의 구성에는, “철저하게 상이하게 기능하는 두 종류의 감각”이 요구된다. 첫째는 “사물 자체에 상응하는 징표”로 파악되는 대상적 내용이며, 둘째는 이러한 파악에 “필연적으로 관여하는” “운동감각”이다(Hua IV, 57). 사물의 모든 “나타남은 자신이 속한 운동감각적 ‘상황(Umstand)’을 지시한다.”(Hua IV, 22) 왜냐하면 사물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며, 지각은 “그 [상황]에 상응하는 파악의 방식”이기 때문이다(Hua IV, 41). 예컨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눈을 움직이면, 사물은 그러한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변화되는 사물의 내용은 ‘이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지각에는 그러한 이행 자체를 구성하는, 즉 눈의 이행을 이행으로 감지하는 또 다른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운동감각이다.

운동감각과 더불어 우리는 지각에서 “만약~라면, 그렇게~(wenn-so)” 내지는 “~이기 때문에, 그래서~(weil-so)”의 관계인 “동기화된 질서(motivierte Ordnung)”를 발견한다(Hua IV, 57-58; Hua VI, 164). 사물의 “측면들 각각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측면의 경과”는 그에 상응하는 ‘상황’과 관련되고, 이 상황은 [...] 운동감각의 복합체와 관련된다.”(Hua IV, 128) 예컨대 사물의 일부가 가리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일 그 배후로 돌아가면 그러한 상황에 상응하여 뒷면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아직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의지기관”인 몸이 이동하면, 언제든 보이지 않던 측면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Hua IV, 151-152). 그래서 후설은 “몸이 공간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Hua IV, 57; 144; Hua VI, 164).

그런데 공간은 몸을 방위설정의 영점(零點)인 ‘여기(Hier)’의 담지자로 삼아(Hua IV, 56; 158), ‘위-아래’의 “높이차원(Höhendimension)”과 ‘왼쪽-오른쪽’의 “너비차원(Breiten-)”, 그리고 ‘앞-뒤’의 “깊이차원(Tiefen-)”이 서로

결부되어 있는 “장소들의 체계(Ortssystem)”다(Hua IV, 127-128; 83). 따라서 운동감각에 의해 사물의 나타남이 동기화되는 것은 “깊이적 질서(Tiefenordnung)의 변화”에 따라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이가면서”(Hua IV, 129) 지각하는 “원근법(Perspektive)”(Hua VI, 161)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설의 분석이 메를로-퐁티가 다루는 공간적 ‘깊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물에서 ‘원근’의 의미가 직접 파악되는 이유는 운동감각의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몸을 앞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잠재적 행동이, 운동적 상황에 부합하여 등장하는 사물의 나타남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상황을 떠맡는 것으로서의 지각은 현실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가능성인 상황까지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을 “가능한 행동의 영역”(PP, 297), 즉 ‘잠재적 행동의 장(場)’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후설의 강조처럼 이 잠재적 행동이 기대가 아니라 지각 자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록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물은 “[주관적으로는] 운동감각적 감각복합체의 지속적인 경과, 대상적으로는 눈이 [...] 다른 위치로 이행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달라지는, 감각복합체의 이행(운동)현상의 지속적인 경과를 본질적으로 전체”함으로써만 지각된다(Hua IV, 128). 그런 점에서 운동감각은 “동기화하는 것(das Motivierende)”이며, 그에 상응하여 주어지는 대상의 내용은 “동기화되는 것(das Motivierte)”이다. “지각은 언제 어디서나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계기]가 상관적으로 결부된 기능의 협력으로부터 생기는 작업수행의 통일이다.”(Hua IV, 58; 65-66)

두 계기의 기능적 협력인 지각을 메를로-퐁티는 ‘게슈탈트(Gestalt)’, 즉 ‘구조’의 체험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전체 상황에서 어떤 변화하는 계기를 취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길을 걷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한편으로 그 상황은 나로 하여금 가던 길을 우회하라는 ‘동기(motif)’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동기를 취하여 장애물을 피하고자 ‘결심(décision)’하는 것은 나 자신이며,

그러한 결심에 의한 행동은 상황이 방금 전과는 또 다르게 전개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동기와 결심은 ‘상황(situation)’이라는 하나의 전체에 속하는 불가분의 두 계기다(PP, 308).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비유가 사물구성에도 적용됨을 보이고자 한다. 전체구조를 이루는 지각에서 어떤 변화에 의해 동기화가 일어나면 “나의 운동적 반응(réponse motrice)이 그 상황을 떠맡는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답은 [다시] 그 문제에 포함된다.”(PP, 311) 예컨대, 정육면체의 전면을 보는 시선은 전면과 측면의 경계인 모서리에 이르면 진로를 바꾸어 측면을 따라 가야만 한다. 만약 시선이 그렇게 전향(轉向)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입체로 지각하는 데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사물이든 그것이 지닌 고유한 형태 그대로 파악하라고 나의 시선을 부추긴다. 하지만 그 유인(誘引)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의식이며, 이렇게 파악이 이루어지자마자 곧 새로운 형태가 다시 들어선다. 따라서 ‘동기화하는 것’과 ‘동기화되는 것’의 관계는 “상호적”이다(PP, 308). 즉 “감각하는 주체와 감각될 수 있는 것 사이의 교환에서, 하나는 영향을 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영향을 겪는 것이라고, 즉 하나가 다른 하나에 [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PP, 258-259)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후설이 ‘동기화하는 것’을 운동감각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대상의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했던 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시선의 운동은 분명 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운동감각적 감각들의 경과를 자유로운 경과이며, [...] 이 자유는 공간성의 구성에 본질적이다.”(Hua IV, 58) 그러나 때로 우리는 시선을 끌어당기는 무엇에 의해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러한 시선전향은 전적으로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를로-퐁티처럼, 지각에서 동기화하는 것과 동기화되는 것은 ‘순환적’인 관계라고, 즉 때로는 ‘운동감각’이 동기화되는 것이고 때로는 ‘대상의 내용’이 동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후설 자신의 말처럼 “수동성이 능동성의 가장 낮은 단계”라면(Hua IV, 213), 자발적인 시선의 운동

에서조차도 그 토대에는 동기화를 수용하는 수동성이 놓여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차원은 후설의 『수동적 종합』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메를로-퐁티의 분석을 좀 더 면밀히 따라가면서, ‘동기화하는 것’과 ‘동기화되는 것’이 교차하는 순환 속에서 어떻게 사물이 구성되는지, 동기화의 상황에 따라 재조직되는 ‘감각적 장(場)’으로부터 어떻게 사물이 ‘부각’되어 공간으로 ‘솟아오르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4. ‘촉발적 부조’와 ‘지각의 여로’에서 구성되는 공간적 ‘깊이’

4.1. 이행하는 감각적 장(場)의 안정화로부터 부각되는 사물

문제가 되는 사태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각적 세계는 균질한 평면이 아니다. 어떤 것은 멀어서 배경이고 어떤 것은 가까워서 전경이다. 사물에서도 전면은 가깝고 측면은 멀다. 이것은 세계가 요철(凹凸)의 형태를 띤 ‘깊이’의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감각의 장(場)으로부터 어떻게 공간적 깊이를 지닌 ‘사물’이 생겨나는가?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PP, 312-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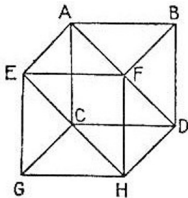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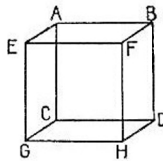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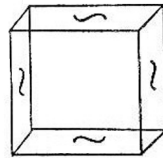


Fig. 3

위 그림은 실제로는 선에 의해 분할된 여러 평면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소나마 입체로서의 공간성을 지각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선과 면의 ‘배치(配置)’가 그것을 사물로 파악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시선이 응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이가 나의 시선 아래에서 탄생한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은 [선과 면이라는 평면적인 감각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quelque chose)’ [즉, 공간적 대상인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PP, 312) 주어진 선과 면 ‘그 이상’의 ‘깊이’를 보게 하는 “지각의 탁월한 능력(génie perceptif)”, 그것은 바로 “시각적 장(場)에서 작동하면서 언제나 [주어진 내용보다] 더 많은 규정을 향하는”(PP, 312) 의식의 ‘구성(Konstitution)’작용이다.¹⁰⁾

따라서 시선이 동기화를 수용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지향적 의식이 ‘대상에 대한 앎’인 지각에 이르기 위해서다. 시선의 이행과 더불어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감각내용의 ‘배치(configuration)’인 장의 질서는 동요되고 공간성이 파괴된다. 하지만 곧바로 의식의 지향성은 그것을 사물로 지각하기 위해, 인상이나 질료의 평면적 질서로부터 공간적 ‘깊이’를 회복하려 노력한다. 다시 말해, 의식은 감각으로부터 지각이 ‘숫아오를’ 수 있도록 유동적인 장(場)을 재조직함으로써 안정화시킨다(PP, 311). “[장에서의] 모든 고정은 언제나 고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물을 위한 고정”이기 때문이다(PP, 313). 그렇게 매순간 재편되어 안정을 되찾는 장으로부터만 사물은 ‘부각’될 수 있다(PP, 296-298).

운동감각에 대한 후설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후설 역시 동기연관에 따른 두 감각의 기능적 협력은 ‘사물 자체’를 ‘지각’하기 위해서, 즉 변화하는 감각에서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 이상(Plus)”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Hua IV, 74). 즉 사물의 “형태는 내 몸에 대한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띠면서, ‘그 형태 자체’를 다소간 ‘유리하게(günstig)’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 측면에서[만]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사물이 보이는 “최적(Optimum, 最適)”의 의미를 규정한다(Hua IV, 58-59). 사물을 지각하고자 노력하는 운동감각의 이행 속에서, 의

10) 현상학의 ‘구성’을 “실제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사념함”으로 정의함은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 326. 지각이 감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줄고(2009), p. 19; pp. 40-42.

식의 시선이 전개되는 감각적 장(場)이 안정화되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니까 사물이 “최적으로 주어지는(Optimale Gegebenheit)” 조건이 충족되는 매순간마다, 장은 깊이와 더불어 사물로 태어난다(Hua XVI, 125-129).¹¹⁾

핵심은, 장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자의적(arbitraire)”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PP, 313). 운동적 반응이 윤곽을 그리는 구조의 “전체는, 깊이에 따라 패어짐으로써 자신의 균형을 추구”한다(PP, 312). 다시 말해, 세계가 다양한 형태의 양각(陽刻)과 음각(陰刻)으로 패여 ‘깊이’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는 의식의 시선 역시 그 요철(凹凸)을 따라 동기화되는 장의 변화를 인수함으로써만 사물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뒤집힌 얼굴이 낯설어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얼굴을 보는 것, [...] 그것은 얼굴에 대한 어떤 파악, 말하자면 방금 전에 올랐던 산(山)을 역(逆)방향으로 다시 내려가면 알아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높낮이(montées et descentes)를 가진 표면의 지각적 여로(旅路, itinéraire perceptif)를 따라가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PP, 301).” 요컨대 대상세계는, 의식의 시선이 좇지 않으면 안 되는 고유한 높낮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적 질서가 행사하는 동기가 “강압적(impérieuse)”이라는 말은 아니다(PP, 313). 왜냐하면 지각의 전체상황에는 동기와 더불어 결심이 속하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들은 어떤 선과 면을 준거로 삼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의식이 장의 어떤 “수준(niveau)”을 “정박점(points d’ancrage)”으로 삼아 지향적 시선을 붙들며 매어두느냐에 따라(PP, 294-298), 옆으로 누인 입체로도 바로 놓인 입체로도 보인다. 또한 사물로 보이던 것에 보조선을 추가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입체를 지각할 수 없게끔 방해하

11) 후설은 이와 동일한 사태를 『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표면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동안, 나는 그것이 제공하는 것 이상(mehr)을 사념한다. 분명 나는, 모든 면들이 동시에 속해있는 이 사물에 대한 존재확실성을 가지며, [그것도] 내가 그것을 ‘최상으로(am besten)’ 보고 있다는 양상 속에서 그러하다.”(Hua VI, 160) 『지각의 현상학』에서 등장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 몸의 최적의 파악(la meilleure prise de notre corps sur le monde)”(PP, 317)이라는 메를로-퐁티의 표현 역시, 이와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

지만, 그렇다고 아예 평면으로 보이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2차원과 3차원의 임계(臨界)에서 진동(振動)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이 지각의 본성이다(PP, 313).

결국 전적으로 주관에 의한 ‘자의적’인 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대상에 의한 ‘강압적’인 것도 아니라면, 지각적 동기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끌리는(irrésistible)” 것이다(PP, 313). 세계의 구조는 나의 자유에 따라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반응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적 상황을 떠맡으면서 [...] 현상들이 말하려 하는 바를 의식한다.”(PP, 313)¹²⁾ 결국 메를로-퐁티가 말한 ‘지각의 탁월한 능력’은, “사물이 [장에서 태어나] 우리 앞에 존재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즉 수용하면서 동시에 구성하는 지향적 의식의 역량이다(PP, 313).

이렇게 ‘수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주어진 것 ‘그 이상’을 보려고 하는 ‘능동적’ 기능을 ‘구성(Konstitution)’ 내지 ‘종합’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객관주의의 종합과는 다르다. 객관주의의 종합은 전체에서 분리된 항을 연합하거나 조립하여 전체를 다시 짜맞춘다(konstruktion). 그러나 지각의 종합은, 전체로서 “상호배타적인 경험들에 동시적으로 현존하는 것, 하나의 경험이 다른 경험에 함축되는 것, 모든 가능한 과정이 하나의 본원적인 지각작용에 함축되는 것이다.”(PP, 314) 이것은 후설이 말하는 “연속적 종합”(Hua VI, 160)으로서의 “이행의 종합”(PP, 315)이자 “수동적 종합(synthèse passive)”(PP, 481; 490)이거니와, 후설은 시간의식에 대한 분석에서 현재가 수학적 점(點)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여전히 붙드는 파지

12) 『지각의 현상학』에는 다음의 표현이 등장한다. “감각함은, 나타남을 소유하거나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나타남에 맡기는 것이다.”(PP, 59) 여기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물을 보고자 노력하는 지각의 능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설의 말처럼 “수동성은 가장 낮은 차원의 능동성”이다. 즉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식은 무엇을 보기 위해 부단히 인식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동성과 능동성은 모순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허락하는 ‘동시적’ 관계다(PP, 490-491).

(把持, Retention)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당기는 예지(豫持, Protention)의 ‘지평(Horizont)’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설은 두 지평적 지향에 둘러싸인 현재를 ‘살아있는 현재’라고 부른다.

메를로-퐁티는 공간에서도 “살아있는 현재”를 보여주려 한다(PP, 315). 정육면체에서 시선이 전면으로부터 측면으로 이행할 때, 완전하게 보이다가 점점 일그러져 시야에서 사라지는 전면과, 아예 보이지 않다가 일그러졌던 것이 점점 퍼지면서 완전하게 보이는 후면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것은 사물의 표면을 따라 시선이 훑어가는 시각적 장(場)의 ‘수준’이 변함에 따라서, 즉 최적의 상황에서 사물을 파악하려는 의식이 장을 고정하는 ‘정박’의 준거점이 달라짐에도, 이미 지나간 면과 앞으로 다가올 면이 형태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통일을 이루어, 아직 사물에 이르지 못한 “선-사물(pré-chose)”로부터 ‘사물’을 솟아오르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각은 단순히 감각의 “종합[인 합성물]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서] 탈바꿈(métamorphose)”이다(VI, 22).

4.2. 감각적 장이 조직화되는 수동적 종합의 원리인 연상과 촉발¹³⁾

메를로-퐁티는 장의 조직화에서 사물이 구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지만, 장이 조직화되는 원리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수동적 종합』에서 후설이 수행한 분석은, 메를로-퐁티가 기술한 사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후설이 ‘수동적 종합’의 원리로 제시하는 ‘연상(聯想, Assoziation)’은 의식의 연달음이다. 그런데 의식은 아무렇게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법칙을 지니고 있다. 연상의 형식은 ‘잇따름’의 ‘계기(繼起, Sukzession)’와 ‘함께’의 ‘공존(共存, Koexistenz)’이다. 공간적 질서인 공존은 시간적 질

13) 본 절의 상당부분은 즐고(2009)의 4.2.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하지만 그 연구는 본고를 주도하는 ‘공간구성’이나 ‘깊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의 4.3.에서 논하겠지만, 지각의 구성에서 깊이를 결여한 순전히 질적이기만 한 감각의 종합은 있을 수 없다.

서인 계기의 종합을 전제한다. 우리가 위-아래, 왼쪽-오른쪽의 방향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의 흐름은 그 모든 방향을 동시에 따라갈 수 없다. 예컨대 눈앞에 정육면체가 있을 때, 우리는 전면과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지만, 실상 그것은 의식이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며 파악한 구성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종합을 공간의 종합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⁴⁾

하지만 계기와 공존은 종합의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 종합되는 것은 감각의 내용이다. 연상이 일어나는 내용적 법칙은 ‘동질성’에 의한 ‘융합’과 ‘이질성’에 의한 ‘대조’다. 후설은 연상을 “일깨우는 것과 일깨워진 것 사이의 일치종합”으로 규정한다(Hua XI, 84; 131; 145; 164). 어떤 감각은 자신과 질적으로 같은 다른 감각을 의식에 일깨운다. 비유로써 큐브퍼즐을 생각해 보자. 이것을 완성하면 큰 정육면체가 되는데, 우리는 이 사물의 한 면을 9개의 작은 면이 아니라 균질한 하나의 면으로 파악한다. 의식이 같은 색의 작은 면들을 서로 “짝지어(Paarung)” “무리를 형성하기(Grupierung)” 때문이다(Hua XI, 131-132). 후설은 이것을 “동질성(Homogenität)”에 의한 “융합(Verschmelzung)”으로 부른다.

그런데 동질성의 종합은 “이질성(Heterogenität)”의 종합과 동(同)근원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같은 것으로 알기 위해서는 같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흐름은 본질적으로 “비교하는 이행(vergleichender

14)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후설은 『사물과 공간』에서 ‘시간적 연장(zeitliche Extension)’과 ‘공간적 연장(räumliche Extension)’이 “밀집히 결부되어 있다(verschwistert)”고 말할 뿐, 어느 한 쪽의 우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Hua X VI, 65). 메를로-퐁티 역시 지각이 전개되는 “현재의 장”이, ‘여기-저기’의 차원과 ‘과거-현재-미래’의 차원으로 “동시에” 확장된다고 말한다(PP, 314-3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계기와 공존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시간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메를로-퐁티는 이렇게 공간지평과 시간지평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시간”(PP, 389)을 “하나의 시간적 파도”(PP, 387)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후설이 『위기』에서 “동시성 및 계기성으로서의, 시간성”(Hua VI, 220)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Übergang)”이다(Hua XI, 130). 그리고 이 비교 속에서 의식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과 앞으로 주어질 것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차린다. 따라서 같은 것으로 향하는 의식은 동시에 다른 것을 밀어내는 의식이며, 이 두 의식에서 “대조(Kontrast)”에 의한 “부각(Abhebung)”의 현상이 생겨난다. 완성된 큐브퍼즐의 각 면은 색(色)이라는 내용에서 균질하지만, 전면과 측면은 모서리를 “경계(Grenze)”로 하여 “질적인 비약(Qualitätssprung)”이 일어나기 때문에(Hua XI, 146), 우리는 양자가 불연속적으로 “상충(Widerstreit)”함을 알아차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대조’의 의식에서만 전면이 측면과 다른 것으로, 측면이 전면과 다른 것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Konkretion)”의 본성은, “전체적 장(場)”으로부터 질적으로 다른 것과 “분리(Dis-kretion)”되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같은 것과 “더불어-생겨나는(Kon-kretion)” 것이다. 결국 동질성 및 이질성은 “함께-생성된다(Zusammenwachsen).”(Hua XI, 130)

연상의 법칙은 “지향에 대한 일깨움”인 “촉발(觸發, Affektion)”과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다(Hua XI, 151; 163). 주어진 감각내용이 그와 닮은 새로운 감각내용을 연상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전자에 대한 의식이 후자에 대한 의식을 들어서게끔 부추긴다는 것, 그러니까 시선을 후자로 향하게끔 ‘동기화(Motivation)’한다는 것이다. 촉발은 의식되는 “대상이 자아에게 행사하는 끌어당김”의 자극이다(Hua XI, 148-149). 이 자극은 자아에게는 일종의 긴장이며, 따라서 자아는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주의(注意)’를 기울이는 ‘전향(Zuwendung)’을 수행한다. 이 전향에서 시선은 아직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허하게 지향하고, 그것이 직관에 의해 감각적으로 충족되면 긴장은 이완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자극에 의해 촉발이 일어난다. 이것은 메를로-퐁티의 말처럼 “배움의 도정(道程)에 있는 의식”인데, 중요한 것은 촉발에 의한 주의가 실제로는 “제한된 무지, 즉 아직은 [감각적으로 충족되지 않아서 내용이] ‘비어있는’ 지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PP, 52). 왜냐하면 일깨워지는 시선은 맹목(盲目)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것을 밀어내면서 동시에 닮은

것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성’은 본질적으로 ‘차이’의 의식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 “촉발이 [전적으로] 대조의 기능인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의 기능이다. [...] [즉] 대조는 촉발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며, 대조의 정도와 더불어 촉발의 정도가, 또한 이미 촉발을 향한 경향의 정도가 결합되어 있다.”(Hua XI, 149) ‘함께-생겨나는’ 동일성과 이질성이 모든 종합의 본질조건이라면, 감각적 장(場)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통일체가 구성되어 부각될 수 있다. 이것은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근본구조로 언급했던 “배경 위의 꼴”(PP, 26)의 계슈탈트를 의미하거니와, 후설 역시 “촉발적 부조(affektives Relief)”라는 개념으로 “배경-전경(Hintergrund-Vorgrund)”(Hua XI, 167)의 현상을 기술한다.

“촉발적 부조(浮彫)[라는] 표현[은] [...] 한편으로 통일체를, 다른 한편으로는 상이한 개별적 계기(契機)에 대한 높낮이(Höhenunterschiede)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양각(陽刻) 내지 음각(陰刻)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것은] 촉발적 부조가 생동하는 현재의 변화 속에서 [두드러져] 강하게 부각되는지 아니면 [균질적으로] 평준화되는지에 따라 그러하다. [...] 촉발적인 부조는 사태의 토대로서 현재의 구조연관을 갖는다. 이로써 촉발[력]은 한 점으로부터 일깨워지는 선을 따라 할당되고, 전체 부조는 이 선을 따라서 부각된다.”(Hua XI, 168)

메를로-퐁티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후설에게서도 세계는 다양한 ‘높낮이’를 가지는 질료들이 융합되어 있는 장(場)이다(PP, 301). 여기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촉발에 의해 지향적 시선이 일깨워지고, 이렇게 일깨워진 지향적 시선에 의해 앞서 지나간 것, 지금 주어지는 것, 앞으로 주어질 것이 연속적으로 종합되어 더 높은 차원의 감각적 통일체가 구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통일체가 또 다시 촉발하면서 지향적 시선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촉발의 본질은, “촉발력(affektive Kraft)” 내지는 “촉발적 경향(affektive Tendenz)”이라는 지향적 시선의 “전파(Fortleitung)”다. 이것이

“항에서 항으로 이행과 중첩의 동적(動的)인 형식을 만들고,”(Hua XI, 131)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작용하는 [···] 일깨움으로 [기능하면서],
 촉발의 이행을 형성한다.”(Hua XI, 157-158)

“자신을 넘어서(über sich)”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앞서 메를로-퐁티가 말한 시각적 장에서 작동하면서 언제나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규정을 향하는 ‘지각의 탁월한 능력’인 ‘지향성’과 ‘구성’의 의미를 읽을 수 있거니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식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촉발이 부추겨 동기화하는 것은 “인식을 향한 노력”이다(Hua XI, 149). 본래적인 의미에서 인식이란 대상적 앎이며, 사물에 대한 지각이다. 의식이 감각에 안주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 것을 “참으로 간주하기(Für-Wahr-Nehmen)” 위해서, 즉 ‘지각(Wahrnehmung)’에 이르기 위해서다(Hua XVI, 15-16). 왜냐하면 “사물과 경쟁하기에 [감각적 차원의] 선-사물(pré-chose)은 밀도가 너무나 부족해서 [···] 참된 시각[인 지각]의 스케치이거나 부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Ⅵ, 22).

4.3. 『수동적 종합』에서의 촉발 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러면 후설이 분석한 “촉발의 전파”(Hua XI, 159)만으로 공간사물에 대한 지각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후설이 『수동적 종합』에서 수행한 분석은 감각내용의 ‘질(質)’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깊이’의 차원을 드러내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직사각형의 평면이 서로 다른 색의 정사각형으로 이등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질성과 이질성에 의해 양자가 부각되는 대조가 일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평면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제는, 그 단순한 ‘질적인’ 정도(程度)의 ‘높낮이’를 ‘공간적’ 요철(凹凸)로 만드는 계기를 드러내는 일이다. 여기가 바로 ‘운동감각’이 의미를 지니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운동감각은 단순히 의식의 흐름에서 주어지는 질적인 내용의 이행이 아니라, 몸에 의해 육화된 지향적 시선의 공간적 위치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가 제시한 앞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자. 분할된 면들이 흰색으로 ‘질’에서 동일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평면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흰’ 배경으로부터 ‘검은’ 색으로 날카롭게 부각되는 모서리의 선을 경계로, 동질적으로 융합되는 각 면의 내부는 외부와 대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색이라는 관점에서 질에 의한 대조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전면은 정사각형이고 측면과 뒷면은 일그러진 사변형으로 보이는 ‘형태’의 대조에서, 모서리를 경계로 표면의 굴곡(屈曲)을 따라 감겨들어가는 우리의 시선은, 측면이 전면보다 ‘뒤’로 함몰(陷沒)되고 전면이 측면보다 ‘앞’으로 돌출(突出)하는 ‘깊이’를 지각한다. 이것이 바로 선과 면의 배치에 따라 평면에서도 공간성을 지각하는 이유다.¹⁵⁾ 이로써 우리는, 후설이 사물구성에서 운동감각과 대상의 내용이라는 두 감성적 계기의 기능적 협력을 언급한 진의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를로-퐁티의 분석이 갖는 생생한 구체성이 어떻게 다소 건조하게 여겨지는 후설의 현상학적 분석을 보완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5. 결어(結語)

본고가 해명하고자 했던 문제는, 단지 체험된 공간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라는 현상학적 공간구성의 일반적 주제를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체험으로부터 공간성을 지닌 지각체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발생의 과정을

15) 이것이 사물구성에서 ‘형태’가 ‘색’보다 더 근원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색 없는 형태는 없고 형태 없는 색도 없다. 후설은 면, 각, 모서리 등을 ‘공간형식(Raumform)’으로, 그 형식을 채우는 색이나 촉감 같은 ‘질’을 ‘내용(Materie)’으로 구분하면서, 양자가 공간구성의 계기로서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Hua XVI, 66; 70-71). 이것은 객관적으로 참된 ‘1차 성질’과 한낱 주관적인 ‘2차 성질’을 구분하는 근대철학의 논의와 전혀 다르다. 후설은 『이념들 I』에서 이러한 구분이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는데(Hua III/1, 82-85; 114-115), 『사물과 공간』에서도 이러한 비판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Hua XVI, 67-68).

추적하여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통해 드러난 것은, 공간성을 구성하는 결정적 계기인 ‘깊이’의 원천(源泉)이, 주어진 감각내용을 대상인 사물로 ‘상승’하게끔 하는 의식의 지향적 구성작용에 있다는 점이다. 의식의 지향성은 지각의 근저(根柢)인 감각적 장(場)에서부터 작동하면서, 질과 형태의 대조적 종합을 통해 공간적 깊이를 ‘솟아오르게’ 한다. 비록 의식의 흐름 및 운동감각의 전개에 따라 공간성은 동요되고 파괴되지만, 곧바로 감각의 배치인 장은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재조직된다. 그리고 사물은 이렇게 장이 안정을 되찾는 때 순간마다 공간적 깊이와 더불어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구성의 원리는, 대상세계의 높낮이 구조가 의식을 촉발하고 지향적 시선이 이에 반응함으로써 이행하면서 감각적 장을 재편하는 수동적 종합이다. 사물은 이렇게 “초월적인 향인 겨냥되는 것과 나 자신의 시각인 겨냥함, 연결된 것에 대한 의식과 연결하는 의식[의] 어떤 순환적인 관계”(PP, 461)에서 태어난다. 이처럼 의식과 세계가 소통하는 지향성의 운동이 지각의 토대인 감각에서부터 수행되는 것이라면, 이제껏 평면으로 간주하여 논의해왔던 감각의 장(場)마저도 한낱 2차원이 아니라, 공간성의 맹아(萌芽)로서 그 나름의 방향과 위치의 “체계”를 가지는 “유사-공간적-장(champ quasi-spatial)”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Hua XI, 143; PP, 269).

그럼에도 이것으로 현상학적 공간구성이 완전히 충분하게 해명된 것은 아니다. 본고는 단지 큰 틀에서 예비적인 밑그림을 그려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구성의 전모를 드러내려면 깊이뿐만 아니라, 방향설정의 중심인 몸, 위-아래의 ‘높이’, 왼쪽-오른쪽의 ‘너비’, 그리고 ‘운동감각’ 각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 이러한 분석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각적 장’에 대한 것일 뿐이고, ‘촉각적 장’이나 ‘청각적 장’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럼에도 그것들은 서로 어떻게 결부됨으로써 ‘하나의’ 공간적 세계를 구성하는지도 탐구해야 한다. 후설은 『사물과 공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를로-퐁티 역시 『지각의 현상학』에서 체험된 공간의 다양한 차원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후설의 현상학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도 향후 천착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류의근(1998), 「메를로-퐁티의 공간 분석과 그 의의」,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0집, 한국현상학회, 182-202.
- 신호재(2009),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감각의 지향성 문제」, 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철학 연구』 제83집, 철학연구회, 117-141.
- 조광제(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서울: 이학사.
- 최재식(2009), 「신체개념을 통한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후설 현상학 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0집, 한국현상학회, 1-33.
- Berkeley, G.(2007), *An Essay Towards A New Theory of Vision*, Dodo Press. (NTV, 『신(新) 시각론』)
- Claesges, U.(1964), *Edmund Husserls Theorie der Raumkonstitution*, Den Haag: Martinus Nijoff.
- Descartes, R.(1988), *Oeuvres philosophiques, Tome I (1618-1637)*, Paris: Bordas. pp. 651-717. (『굴절광학』)
- Husserl, E.(1976),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Allgemeine Einführung in die reine Phänomenologie. 1. Halbband. Text der 1-3 Auflage*, Den Haag: Martinus Nijoff. (Hua III/1, 『이념들 I』)
- _____ (1952),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Zweites Buch: Phänomenologische Untersuchungen zur Konstitution*, Den Haag: Martinus Nijoff. (Hua IV, 『이념들 II』)
- _____ (1954),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Den Haag: Martinus

- Nijoff. (Hua VI, 『위기』)
- _____ (1966), *Analysen zur passiven Synthesis. Aus Vorlesungs- und Forschungsmanuskripten 1918-1926*, Den Haag: Martinus Nijoff. (Hua XI, 『수동적 종합』)
- _____ (1973), *Ding und Raum. Vorlesungen 1907*, Den Haag: Martinus Nijoff. (Hua XVI, 『사물과 공간』)
- _____ (1984), *Logische Untersuchungen, Zweiter Band: Untersuchungen zur Phänomenologie und Theorie der Erkenntnis. Zweiter Teil*,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Hua XIX/2, 『논리연구 II/2』)
- _____ (1970), *Logical Investigations*, trans. by J. N. Findlay. London: Routledge and K. Paul, Humanities Press.
- Merleau-Ponty, M.(1942), *La structure du comportemen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SC, 『행동의 구조』) (2002 printing.)
- _____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PP, 『지각의 현상학』) (2005 printing.)
- _____ (1964),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Gallimard. (II,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004 printing.)

원고 접수일: 2010년 11월 1일

심사 완료일: 2010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15일

ABSTRACT

The Perception of ‘Depth’ in the Phenomenological Constitution of Space

- Husserl’s ‘affective relief’ and Merleau-Ponty’s ‘perceptive itinerary’ -

Shin, Ho-Jae

Criticizing the classical conception of sensation in empiricism and intellectualism, Merleau-Ponty calls attention to the concrete and vivid experience of sensation and perception in life. Blinded by the prejudice of objectivistic reflection, which regards the visual world as vertically flat and even, both theories above could not explain the phenomenon of ‘depth’ which means no other than the perception of distance. Merleau-Ponty shows that only by the ‘depth’ as inseparable moment of perception, three dimensions of space can open and unfold before our eyes, so that the sense of a materially presented thing is provided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Husserl’s analysis of kinesthetic sensation, the spatiality of perception has its ground on the transition of thing’s appearances corresponding to the body’s movement. The functional cooperation between kinesthetic sensation and the way of thing’s manifestation works reciprocally in such a way that the motivating and the motivated correlate circularly as two moments within one circumstance of perception. This means that perception has a structure of visual field, which reorganizes itself continuously in regaining

stability as soon as it lost equilibrium by transition of sensorial content. A perceived thing obtains its spatial depth in being brought into relief with re-stabilization of this floating field of consciousness. Affection is defined as the propagation of intentional vision, which becomes generated in such a way that consciousness responds to the stimulant exerted by object and world. In this sense, Husserl's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affective relief'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Merleau-Ponty's description of depth. For according to Husserl and Merleau-Ponty, the world has its own structural field formed by various levels of protrude and dent, front and background. This means that the world has its own prescribed 'itinerary of perception' to be apprehended, after which the intentional vision of subject need to follow in being affected and motivated by the *Gestalt* of world.